

부시정부 시기 석유자원이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GPR)에 미치는 영향*

김송죽** 최유나***

목 차	
I. 서론	둔 미군 재배치 정책
II. 외교정책결정과정에서 지경학적 힘과 집단사고이론	IV. 탈냉전기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현황
III. 석유 부족현상 및 주요 외교정 책결정그룹의 특징과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정책	1. 아프리카: 미-아프리카사령부 (AFRICOM)·리비아
1. 석유 부족현상과 주요 외교정 책결정그룹의 특징	2. 중동: 쿠웨이트·이라크
2. 부시정부의 군사변화와 해외주	3. 중앙아시아: 아프가니스탄·카스 피해 BTC 송유관
	V. 결론

| 논문요약 |

본 논문은 탈냉전시기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GPR: Global Posture Review) 사례를 통하여 군사력과 석유자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미국은 냉전기 50년(1941-1991년) 동안 수많은 신군사전략을 발표해 왔지만 부대편성 및 배치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탈냉전기인 1990년대 중반부터 군사변화와 동시에 GPR 계획을 발표하였고, 부시정부 시기에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9-362-A00002). 또한 2008년 12월 12일 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통찰력 있는 논평과 조언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과 교정을 도와준 박정원 후배님(이화여자대학교 지역학과 석사과정)께 감사드립니다.

**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HK연구교수.

*** University of Warwick, Department of Politics and International Studies 석사 졸업.

이를 본격적으로 실행하였다. 그 결과, 미군기지는 정치군사적·전략적으로 산유국들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중동·중앙아시아·아프리카 지역으로 이동하는 커다란 변화를 가졌다.

구체적으로는 탈냉전시기 미국 주도하에 치러진 3차례의 전쟁과 BTC 송유관 건설, 리비아와의 국교정상화, 미-아프리카 사령부 창설 등의 사례를 통하여, 석유자원과 주요 외교정책결정그룹의 집단사고가 해외주둔 미군을 산유국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재배치시켰다는 것을 밝혔다. 이를 통해 외교정책결정과정에서 석유자원의 지경학적 힘과 정책결정자의 집단사고이론이 적용됨을 분석하였다. 석유라는 경제적 이익이 거시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주요 정책결정자들의 개인적 배경과 성향이 미시적 요인으로 작동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군사력 동원 및 강화를 가져왔다.

▪ 주제어: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집단사고이론, 부시정부, 산유국, 지경학

I. 서론

“Once upon a time, one could trace the imperialism by counting colonies. In the neo-imperial version, colonies are military bases.”

“한때 우리는 제국주의를 식민지의 수로 가늠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신 제국주의하에서, 그 식민지는 해외주둔 군사기지의 수로 변모되었다.”라고 주장한 포카스(Fouskas)와 바실리스(Vassilis)는 미군기지의 제국(US empire of bases)을 새롭게 조명해야 할 당위성을 시사하고 있다.¹⁾

1) 국제정치학에서 제국주의는 다층적인 의미로 정의 되어져왔다. 포카스와 바실리스(2003)는 힐퍼딩(1910)의 ‘제국주의론’과 룩셈부르크(1913)의 ‘자본축적론’을 거쳐 레닌(1916)의 ‘자본주의의 최고단계로서의 제국주의’에 이르러 제국주의는 무자비한 부의 추구가 가져오는 영토 확장을 의미하게 된다. 제국주의는 국제정치학 역사상 그 의미가 확장되고 중첩되어 ‘팽창주의’, ‘식민주의’와 같은 맥락에서 쓰이기도 한다. 본 논문은 제국주의를 제국(empire)의 형성 그 자체로 정의한다. 이에 근거하여 이 글은 국제정치에서 헤게모니 국가들의 세력팽창을 비판적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한다(Fouskas & Vassilis, 2005).

미국은 50년(1941-1991년)²⁾간 지속된 미소 양극체제의 냉전시절 수많은 신군사전략을 발표해 왔지만 부대편성 및 배치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탈냉전기인 1990년대 중반에 군사변환(Military Transformation)과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GPR: Global Posture Review) 계획을 발표하였고, 부시정부가 이를 본격적으로 실행하였다.

그 결과, 미국은 전 세계 192개 국가에 미군기지를 주둔시켰고 국방비 지출도 냉전기보다 탈냉전기에 더욱 크게 증가하여 전 세계 국방비의 약 50%를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아래 <표 1>을 보면, 냉전시절 해외주둔 미군기지는 소련과 공산국가를 견제하기 위해 자유진영 국가들이 주로 분포한 서유럽과 동아시아 지역에 배치되었다. 그러나 1991년 소련을 비롯한 공산국가 해체로 주된 견제대상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탈냉전시기 미군기지는 정치적·군사적·전략적으로 산유국들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남중국해 연안지역으로 재배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GPR)의 연대적 계보

시기	냉전기 (1941-1991: 50년)	탈냉전기 (1991-2008: 부시정부 시기까지)
중심이념	정치적·이념적 중심의 지정학	경제적 이익 중심의 지정학
해외주둔 미군기지	자유진영 국가 중심	산유국 중심
주요 해외주둔 미군기지	서유럽: 독일·영국 등 동아시아: 일본·한국·필리핀 등	중동: 이라크·쿠웨이트·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오만·바레인·UAE 중앙아시아: 아프가니스탄·그루지아·터키·카자흐스탄·아제르바이잔·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아프리카: 리비아·지부티·소말리아·나이지리아
미국 국방비	정체	증가 ↑

* 필자 작성

2) 보통 냉전시기는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었을 때부터 1991년 소련의 붕괴까지 50년을 말한다(Lebow & Risse-Kappen, 1995).

본 논문은 부시정부 시기 전면적으로 실시한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와 구체적인 군사변환을 야기 시킨 근본원인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고, 핵심변수는 석유자원과 주요 외교정책결정그룹의 집단사고라고 주장한다.

조지 부시(George W. Bush)는 부친(父親)인 워커 부시(George Herbert Walker Bush) 대통령 임기 시절, 1991년 냉전종식으로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과 미국 중심의 단-다극체제로의 전환을 목도하였다. 이 말은 곧 세계패권을 장악하는데 있어서 국가의 정치적·이념적 대립인 지정학 보다는 국가의 경제력이 더 중요해지는 지정학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의 경제력이 중요해지는 오늘날 유한자원인 석유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왜냐하면 20세기부터 한 국가의 산업화·공업화·현대화의 경제성장을 이루는 중요한 원동력에는 석유자원이 절대적인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세계1위의 석유 소비국이자 석유수입국으로, 이 석유자원을 기반으로 세계1위 경제대국의 자리를 고수해 왔다. 부시정부는 경제력과 군사력에 우위를 선점하여 세계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석유자원라고 인식하였고, 국가 최대 안보사안으로 격상시켰다. 이것은 부시 대통령이 2001년 백악관에 입성한지 2주일도 지나지 않아 국가에너지정책개발그룹(NEPDG: National Energy Policy Development Group)³⁾을 구성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미국 GPR의 원인에 관한 국내외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최첨단 무기 및 기동성의 강화로 인한 군비축소와 9.11사태 이후 반테러전쟁과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확산방지 차원에서 불량국가(rogue state)⁴⁾와 테러집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QDR·NSS

3) 국가에너지정책개발그룹(NEPDG)은 조지 부시가 2001년 제43대 대통령 당선 직후 마련한 국가에너지정책기구이다. 미국의 국가에너지정책(NEP)은 세계 석유자원이 특정국가 혹은 정치권력에 의해 장악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석유가격 또한 미국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석유자원을 미국 외교정책 수단의 하나로 적절히 활용한다는 특징 가지고 있다.

4) 불량국가란 냉전 이후 새로운 적을 규정한다는 명목으로 부시정부가 만들어낸 용어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위협하고, 마약 밀매나 국제테러 등 세계평화와 공

참조), 혹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봉쇄정책의 일환으로 해석한 연구가 주류를 이룬다. 석유자원이라는 경제적 이익 때문에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를 실시하였다는 가설을 주장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드물다. 특히, 주한미군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GPR 연구는 미국의 정책변화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에 집중되었고 그 편수도 적어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⁵⁾

따라서 본 논문의 GPR 사례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 하나는 부시정부 시기 군사력과 석유자원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표면적으로 관찰되지는 않지만, 주요 외교정책결정그룹의 석유자원에 대한 인식이 군사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즉, GPR의 수사적 목적(rhetorical purpose)⁶⁾에 집중된 종래의 연구 한계를 극복하고, GPR의 실질적 목적(practical purpose)을 밝히는 것에 연구의 차별성을 두고자 한다.

GPR에 영향을 미치는 석유확보 요인은 기존 학계에서 언급된 요인들(국제테러방지, 중국과 러시아 견제, 최첨단 무기 및 기동성의 강화 등)과 상충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석유에너지 요인이 기타 요인들 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기존에 표면적으로 관찰되던 정책의 추동요인을 넘어, 표면아래 작용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심층적 연구에 목적이 있다.

이 글의 분석대상인 GPR의 배경과 전략적 의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석유자원과 군사력의 상관관계, 21세기 미국의 외교관심사, 정치 엘리트의 집단사고와 리더쉽의 강화, 미국이 주도한 3차례의 전쟁 원인과 공통분모, 탈냉전시기 국제정치의 추동요인, 자원확보를 위한 신제국주의

존을 위협하는 제3세계 국가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미국이 ‘악의 축’으로 규정한 이라크·이란·북한·쿠바·리비아·시리아 등이 해당된다.

5) 즉,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응하는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 변화하는 한·미 동맹관계에서의 새로운 거버넌스 창출, 미군 합참본부의 National Military Strategic Plan 중 QDR의 해석 등의 측면에서 학문적 성과를 거두었다(최아진 2010; 김진기 2007; 김광용 2003).

6) 수사적 목적이란 정책의 전략적 측면에서 설득력 있는 논리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 목적을 쟁취하기 위한 명분의 역할을 수행한다. 부시정부의 미군 재배치 정책은 9.11사태를 계기로 테러 소탕과 불량국가에 대한 선제공격과 자유민주주의 확산을 명분(수사적 목적)으로 중앙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에 미군을 재배치(실질적 목적)하고자 하였다(Oxford Handbook of Politics 2007).

적 외교정책 등에 관한 중요한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GPR 연구의 공간적 범위를 동아시아가 아닌 전 세계로 확장하였고, 시간적 범위를 넓게는 냉전기와 탈냉전기로, 좁게는 부시정부 시기로 압축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에너지국(DoE: Department of Energy), 미 국방부(US Department of Defense), 미-아프리카사령부(US-AFRICOM), 미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 미국 해군청(www.navy.mil), BP(British Petroleum), EIA(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the Project of the New American Century(<http://newamericancentury.org>) 등 1차 자료를 근거로 질적 분석방법을 취하였다. 한 국가의 외교정책결정과정은 국가기밀 사안의 특수성과 중대성으로 인해 일차적으로 관찰이 불가능하고, 작성된 내부문건 또한 획득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석유자원에 대한 주요 정책결정자들의 발언과 미국의 주요기관 문서를 분석하여 석유자원이 GPR에 미치는 영향을 유추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이론적 논의로,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지경학적 힘의 부상과 집단사고이론을 설명한다. 제3장에서는 독립변수인 미국의 석유부족 현상 및 주요 외교정책결정그룹의 특징을 제시하고, GPR 정책과의 연계성을 설명한다. 제4장에서는 탈냉전시기 석유확보를 둘러싼 GPR 현황 즉, 중동지역의 걸프전(1991)·이라크전(2003) 그리고 중앙아시아지역의 아프가니스탄전(2001)·카스피해 BTC 송유관 건설, 아프리카지역의 불량국가에서 친미국가로 전향한 리비아·2008년 미-아프리카사령부 창설을 사례로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이 글의 결론을 서술한다.

II. 외교정책결정과정에서 지경학적 힘과 집단사고이론

이 글의 독립변수는 석유자원과 부시정부의 외교정책결정그룹이다. 석

유자원과 부시를 중심으로 한 정책결정그룹의 사고 형성과정은 국가이익 인식과 설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관련지어, 외교정책결정과정에서 지경학적 힘과 집단사고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책결정과정에서 행위자를 추동하는 제1의 독립변수로서, 경제적 이익인 석유자원은 오늘날 지경학과 연계된다. 지경학은 지역과 지리에 있어서 경제적 이익이 정치안보적 이익보다 우선된다는 것으로 국제관계학의 발전과정에서 등장했다. 1982년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가 처음으로 ‘지경학적 힘’을 거론하였다. 그는 자본주의 경제구조로 인한 잉여생산물에 제국주의를 유도하고, 잉여자본 매매와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해 자본주의 국가들은 지리적으로 팽창한다고 주장한다(Julien Mercille 2008). 이것은 자본주의 국가의 외교정책이 근본적으로 경제적 논리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비의 이론은 루트왁(Luttwak 1993), 디켄(Dicken 2003), 폴라드와 시더웨이(Pollard & Sidaway 2002)에 의해 발전-세밀화되었다. 지리적으로 팽창하려는 국가의 경제적 욕구는 지경학적 논리(geoeconomic logic)를 형성하고, 이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한 지역 안에서 자원을 관리·통제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고, 둘째는 세계경제에서 한 국가가 우위를 선점하는 것이며, 셋째는 금융·무역 부문에서 한 국가가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정치외교적 행위를 뜻한다.

메르사일(Mercille 2008)은 애라히와 하비의 이론을 적용하여 탈냉전시절 미국의 외교정책이 ‘지경학적 논리’에 의해 작동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특히 베트남전쟁과 대(對)이란정책을 분석하여, 미 군사안보정책의 표면적·수사적 목적이 인권수호를 위한 개입이었지만 이것의 실질적 목적은 경제적 이익이었음을 밝혔다(Philippe Le Billion 2004).

본 논문은 하비의 지경학적 힘과 지경학적 논리를 바탕으로, 경제적 이익인 석유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부시정부의 위장된(disguised) 외교안보정책이 바로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라는 명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제2의 독립변수는 주요 외교정책결정그룹으로, 행위자의 정책결정과정 그 자체를 분석하였다. 베일에 싸인 외교정책결정과정을 탐구하기 위해

사회과학자들은 수많은 이론을 양산해 왔고, 그중 부시정부의 외교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함에 있어 다수의 학자들은 집단사고(Group Thinking)이론을 사용해 왔다.

제니스(Janis 1972)에 의해 체계화된 집단사고이론은 의사결정과정에서 행위자들이 본래의 정체성을 버리고 그룹 전체의 의견에 스스로를 동일화시키는 현상을 설명했다. 즉, 외부위협에 대한 잘못된 판단, 집단적 이성화 과정, 그룹 내의 도덕성에 대한 그릇된 믿음, 외부 적에 대한 스테레오 타입화 과정, 그룹 내 반대자에 대한 직접적 압력행사, 자발적 자기검열, 만장일치에 대한 환상, 자발적 마인드 가드(mind guard)에 의한 선별적 정보 제공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과정에서 왜곡된 판단이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Dina Badie 2010).

허트(Hart 1990)는 집단사고방식이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하는 경우를 이론화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집단사고방식은 그 집단의 멤버에게 두 종류의 압력인 수평적 압력(horizontal pressure)과 수직적 압력(vertical pressure)을 행사한다. 수평적 압력은 동료 간의 의사결정 일치화 과정을 의미하고, 수직적 압력은 리더에게 복종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허트는 그룹 내의 규범화 정도가 약하거나 긴급한 결정이 요구되는 사안의 경우, 수직적 압력이 강화되어 지도자의 역할이 의사결정과정에서 극대화된다고 주장한다(Steven B, Redd and Alex Mintz 2013). 이 글은 9.11사태로 부시정부의 긴급한 결정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수직적 압력이 작용했지만, 9.11사태 이후에도 여전히 부시정부의 수직적 압력이 유지되었다고 본다.

바디(Badie 2010)는 주요 정책결정그룹(promotional group)의 성향과 개인 프로파일 분석을 통해 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녀는 9.11사태 이후 정책결정과정에서 부시, 체니, 럽스펠드의 역할을 주목하여, 9.11사태 직후부터 부시 대통령의 리더십이 의사결정과정에서 더욱 강화되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행위자의 심리·인지적 부분인 개인적 요소(지도자의 신념, 과거의 선경험, 가치관, 성격, 재능)가 외교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필립(Philip)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Philip E. Tetlock & Charles B 1986). 본 논문에서는 GPR의 주요 정책결정자들로 워커 부시, 조지 부시, 딕 체니(Dick Cheney)를 선정하여 이

들의 프로파일을 분석하고, 그 성향이 외교정책결정과정 전체의 의견에 동일화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부시정부 시기 외교정책의 핵심사안은 석유자원의 경제적 이익에 맞춰졌다. 이는 그가 대통령이 된 지 2주일도 지나지 않아 국가에너지정책개발그룹(NEPDG)을 구성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석유자원은 부시와 유사한 가치체계를 가진 주요 정책결정자들의 개인적 배경과 인식, 그리고 공화당의 집단적 이익 측면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석유자원과 부시정부의 외교정책결정그룹, 이 두 가지 변수는 정치군사적으로 미국의 군사변환과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Ⅲ. 석유 부족현상 및 주요 외교정책결정그룹의 특징과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정책

1. 석유 부족현상과 주요 외교정책결정그룹 특징

(1) 석유자원 부족현상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세계1위의 석유소비국이자 석유수입국인 미국은 1998년부터 50% 이상의 석유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의 5대 원유수입국은 캐나다,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이다(EIA, (n.d.)). 현재 전미 석유수입의 65%가 이 5개국에 편중되어 있어 수입 다변화의 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다.

2001년 3월 부시정부의 에너지 장관인 스펜서 아브라함(Spencer Abraham)은 미국이 향후 20년 내에 에너지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1998년부터 이미 전체 석유소비량의 5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2025년이 되면 70%를 수입하게 될 예정이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미국의 경제적 번영은 위협받게 되고, 국가안보에 비상이 걸려,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국가에

너지관계자회(National Energy Summit)에서 발표했다.

1953년 오일피크(oil peak)란 개념을 도입한 석유지질 학자인 킹 허버트(King Hubbert)는 1970년을 기점으로 미국의 석유생산율이 하락세로 바뀔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로 알래스카 프루도 베이(Prudhoe Bay) 인 근 유전을 제외하고, 미국 최대 유전인 텍사스 증질유(WTL West Texas Intermediate)를 포함한 대부분의 유전들이 이미 고갈되어 채취하기가 어려운 상태다.

이러한 석유 고갈문제의 핵심은 미국의 모든 경제산업활동과 생활양식이 석유자원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는 데 있다. 미국의 1인당 에너지 소비율은 7.5toe로 여타 선진국(영국 3.4toe, 독일 4.08toe)에 비해 월등히 높다(에너지경제연구원 2010). 2002년 NEP 보고서에 따르면, 석유의 소비형태로 산업용도 33%, 상업용도 19%, 운송수단 28%, 생활주거용도 20%로 미국의 중산층 1가구(4인 기준)당 평균 3대 이상의 자동차뿐만 아니라 항공, 철도 등 거의 모든 운송수단이 석유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대 군사력을 가진 미국은 전쟁수행능력의 중추를 담당하는 전쟁무기(탱크, 항공기, 헬리콥터, 군함 등)들이 모두 석유의존형이다. 미국의 거의 모든 부문에서 필수동력이 되고 있는 석유자원의 역할을 고려할 때, 석유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민생안정에 직결되는 자원이다.

2000년 전체 석유사용량의 55%(45억 배럴)를 수입해야 하는 미국은 정치적 이유로, 제3위 원유수입국인 베네수엘라로부터 석유를 수입할 수 없는 실정이다⁷⁾. 멕시코 원유는 이미 미국처럼 오일피크를 지나 유전들의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지 오래다. 또한 캐나다 원유의 경우, 재래식 유전은 생산량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오일샌드(oil sand)에서 추출되는 원유는 채굴시 환경에 재앙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격이 비싼 북해산 브렌트유(Brent oil)를 구입해서 쓰는 것 또한 경제적이지 않다. 미국 석유수입선의 실상을 고려하면, 안정적 석유자원 공급처의 확보는 국가안보를 위해 그 무엇보다 시급한 사안이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중동과 중앙아시아의 카스피해, 아프리카 등 석유공급망 확대 및 수송로의 다원화에 총력

7) 1998년 12월 차베스 대통령은 전형적인 반미성향의 지도자로,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을 적극 수용하여 미국과 불편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을 기울이고 있다.

(2) 주요 외교정책결정그룹의 특징: 개인 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공통분모의 유출

2001년 제43대 대통령이 된 조지 부시는 백악관에 입성한지 2주일도 지나지 않아 국가에너지정책개발그룹(NEPDG)을 구성하였고, 딕 체니 부통령이 이 기구의 위원장을 맡았다. 이어 부시정부는 같은 해 5월 에너지 정책보고서(National Energy Policy)와 2005년 8월 에너지법(Energy Policy Act of 2005)을 채택함으로써, 에너지 문제를 국가 외교·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결정했다.⁸⁾ 부시정부 시기 외교정책결정과정의 최고 권위자인 조지 부시와 딕 체니, 그리고 이들의 연결고리가 되는 워커 부시의 개인적 배경을 살펴보면 석유자원과 군사력의 부분에서 많은 공통분모를 가진다.

부시와 체니는 역대 미국정부 역사상 가장 유사한 가치체계를 공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당시 부통령이자 상원의장을 맡고 있던 딕 체니는 직위의 이점을 활용해 공화당 내 강경보수파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부시정부의 정책실행 지지를 이끌어냈다. 럼스펠드(Donald H. Rumsfeld) 국방장관도 “체니의 말은 대통령을 대신한다고 생각하면 틀림없다.”라고 말했고 미국 언론들은 딕 체니를 부시 대통령의 총리, 친구, 가정교사, 큰형 등으로 표현하였다. 부시 부자(父子)와 딕 체니의 공통분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의 <표 2>와 같이 부시 부자는 미국의 최대 유전지대인 텍사스 출신이다. 부친인 워커 부시는 예일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53년에 자파타(Zapata Corporation, NYSE: CAT)라고 불리는 석유기업을 설립하였다. 아들인 조지 부시도 하버드대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은 후 1975년

8) 미국은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문제를 경제적 차원을 넘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안보전략의 차원에서 다루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기존 석유·가스 매장지역의 안정유지, 중동지역을 대체할 수 있는 신규 매장지 개발과 확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서 미국의 패권 확보 및 유지 등 미국 에너지 정책의 주요 내용이 포함됐다.

석유시추기업인 부시탐색기업(Bush Exploration)과 1984년 석유탐사업체인 스펙트럼 7(Spectrum 7)을 설립했다.⁹⁾ 부시 부자는 모두 석유기업 텍사코(Texaco)에서 근무하였고 그 후에 각종 석유관련 경영과 주주로 활동하면서 부를 축적하였다. 딕 체니는 석유기업인 헬리버튼(Haliburton)에서 회장과 기업주주로 활동하였다. 헬리버튼은 이라크 전쟁 후 복구사업의 대부분을 주관하면서 부를 축적한 석유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표 2> 주요 외교정책결정자들의 공통분모

지도자	제41대 워커 부시(父)	제43대 조지 부시(子)	제43대 딕 체니(부통령)
군대	항공모함 뇌격기 조종사 (1942-1945)	텍사스주 공군(1968)	미국 국방부 장관(1989)
석유 기업	자파타 석유기업 설립 (1953-)	시추기업 부시탐색회사 설립(1975-), 석유탐사업체 스펙트럼 7 설립(1984)	시추기업 헬리버튼 이사장 (1995-)
공화당	공화당 입당(1959)	공화당 입당	공화당 원내총무(1988-)
지역	텍사스주 제7구 하원의원(1966)	텍사스주 주지사(1993)	와이오밍주 하원의원 총6선 (1978-)
교육	에일대 경제학 학사	하버드대 경영대 석사	와이오밍대 정치학 학·석사
전쟁 경험	걸프전쟁·파나마전	아프가니전·이라크전	걸프전·아프가니전·이라크전
이들은 '석유자원'과 '군사력'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짐			

* 필자 구성

이 3인은 모두 군사력과 관련된 군경험을 가진다. 아버지 워커 부시는 항공모함 뇌격기 조종사였고 아들 조지 부시는 텍사스 주방위군 전투비행단(Texas Air National Guard) 공군 출신이다. 딕 체니는 워커 부시의 대통령 임기시절 국방장관이였다. 그는 1991년 걸프전을 승리로 이끈 인

9) 조지 부시는 텍사스 주지사 시절, 단행한 친 석유정책[석유기업을 위하여 주 (state)정책을 수정함]과 대통령 임기 시절,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석유개발의 법안[알래스카 국립북극야생동물보호구역(ANWR: Arctic National Wildlife Refuge) 내부 석유개발, 연안지역 석유시추 금지 해제]들을 통과시켰다. 그는 대표적인 친 석유성향의 국가지도자이다.

물이다. 이 3인이 주도하여 벌어진 전쟁이 걸프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이다.

이들은 모두 미국 공화당 강경보수파이다. 미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양당체제로, 어느 정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외교정책의 중요 사안이 달라지고, 이 양당의 선거자금 지지기반의 세력들 또한 명확히 구분된다. 공화당의 선거자금 지지기반 세력은 석유기업과 무기제조 방산업체인 (*The Nation* 2008/05/01) 반면, 민주당은 자동차기업과 할리우드 영화산업체다. 공화당은 미국 남부지방(텍사스, 뉴멕시코, 오클라호마, 아리조나 등)의 백인들과 미국 석유메이저¹⁰⁾기업, 철강, 총기·무기제조의 방산업체¹¹⁾ 등으로부터 막대한 선거자금을 지원받는다. 공화당이 대통령과 정부를 장악할 경우, 국내적으로는 이 기업들에 대한 감세정책과 총기소지의 합법화를 주장하고 국제적으로는 석유자원 확보와 무기판매사가 주요 현안으로 등장한다. 따라서 미국 외교정책결정과정에서 정당이 차지하는 위치를 감안하고,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연관성을 가정할 경우, 공화당과 석유기업, 무기제조의 방산업체의 유착관계가 외교안보정책에 반영될 개연성은 상당부분 상승한다.

이 3명의 정책결정자는 석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1997년 클린턴 정부시절부터 'the Project of the New American Century'라는 압력단체를 조직한다. 이 단체는 이라크 내의 정권교체를 요구하였고 이라크에 미국의 군사력을 증가시켜야하며 필요하다면 후세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내용을 작성하여 당시 하원의장이었던 뉴트 깅리치(Newt Gingrich)에게 보냈다. 이 문서는 럽스펠드 국방장관, 리차드 알미티지(Richard

10) 세계 5대 석유메이저기업(International Major Oil Company)은 엑손모빌(ExxonMobil·미국), 셰브론(ChevronTexaco·미국), 셸(RoyalDutchShell·다국적)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Amoco·영국), 토탈(TotalElfFina·프랑스)로 석유의 탐사·생산·정제·수송·판매 등 모든 분야에서 권한을 장악하고 있다.

11)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 Corporation)은 F-22, F-35, F-16을 만들어내는 세계 최대의 방산업체이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방산업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전쟁이 일어날수록 부를 축적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이다. 이외에 미국의 보잉(The Boeing Company), 노스롭그루먼(Northrop Grumman Corporation), 레이시언(Raytheon), 제너럴다이나믹스(General Dynamics Corporation)와 영국의 BAe(British Aerospace Systems)가 세계 6대 방산기업으로 들어간다.

Armitage) 국무부차관, 존 볼튼(John Bolton) 국무부 무기 담당관 등이 작성했으며, 작성자 중 특히 주목할 만한 인물은 전 석유업계 컨설턴트였던 자말 칼리자드(Zalmay Khalilzad)이다. 그는 아프가니스탄 특별 보좌관으로 아프가니스탄을 관통하는 송유관 건설계약을 성사시켰고,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특별 보좌관이기도 했다. 부시정부의 외교안보 담당자부터 대통령까지 이 정책결정자들은 석유기업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¹²⁾ 이러한 맥락에서, 이라크 전쟁은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 부시 대통령 당선 전부터 수립된 정책으로써 재해석할 여지도 존재한다.

한편 9.11사태 이후 부시는 부시독트린을 발표함으로써 긴급한 사안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수직적 압력의 강화와 이 주요 외교정책결정그룹에 결정권한을 집중시키는 집단사고형성을 유도했다. 부시의 잇따른 동일한 내용의 연설의 반복은 의사결정에 대한 여타멤버들의 설득과정의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¹³⁾

이처럼 부시정부의 주요 외교정책결정자들은 공통적으로 석유기업 설립자이며, 미국 내 가장 큰 유전지대인 텍사스 출신이다. 또한 석유산업과 긴밀한 관계를 지닌 공화당 출신이며 석유기업을 경영하기 위해 경제·경영학을 전공하였다. 이들의 개인적 배경(교육, 지역, 경험)을 통해서, 부시정부 당시 주요 정책결정자들의 석유자원에 대한 인식이 미국의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국제정치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집단사고이론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또한 국가지도자이자 집단적 이익을 공유하는 공화당의 수장으로서, 이 3인은 자신들과 유사한 가치체계를 가진 정부고위관료인 럼스펠드 국방장관·콘돌리자 라이스 안보담당 수석보좌관·알미티지 국무부차관·볼튼 국무부 무기 담당관 등과 함께 압력단체를 조직하였고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실행의 참여자와 결정자가 바로 이들 모두이다.

12) 이들은 'http://newamericancentury.org'이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석유자원과 군사정책에 관한 논의를 교환했으나, 2011년에 폐쇄되었다.

13) Bush's Speech at the White House, September 11, 2001; Bush's Speech at Congress, September 20, 2001; Bush's State of Union Speech, January 29, 2002; Bush's Speech at Westpoint, June 1, 2002; White House, 2003; Bush's Speech at National Endowment, November 6,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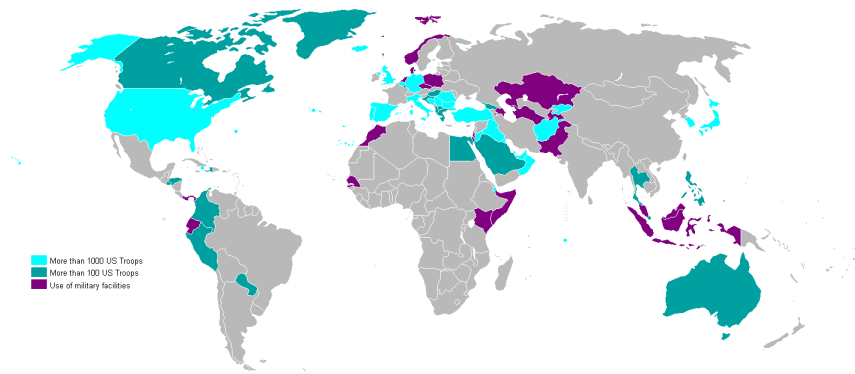
2. 부시정부의 군사변환과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정책

냉전기 50년 동안 해외주둔 미군기지 배치와 부대편성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던 미 국방부는 부시정부에 들어서 구체적인 군사변환과 본격적인 GPR 계획을 실행하게 된다. 특이한 점은 부시정부의 GPR 정책이 종래 행정부의 정책제안을 의회가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 교서를 송부하여 의회의 형식적 승인을 받은 뒤, 국가안보전략을 통해 구체화되었다는 점이다(김영호 2004). 그 결과, 미군기지는 정치군사적·전략적으로 산유국들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중동·중앙아시아·아프리카 지역으로 이동하는 커다란 변화를 가졌다.

미국의 군사변환과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냉전시기 미국의 군사전략은 재래식 작전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수적 우세, 공산국가를 견제하기 위한 대칭적·지형적 구도였다. 그러나 탈냉전시기 미국의 군사변환은 걸프전(1991)·코소보전(1999)·아프가니스탄전(2001)·이라크전(2003)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첨단 군사기술로 변모했다. 일명 전자전(electronic warfare), 원격전(standoff warfare), 사이버-네트전(net warfare)으로 원거리 탐지 및 공격의 복합체계, 탈대량화,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기술과 최첨단무기들이 등장했다. 이로 인해 가능해진 비대칭적·시간차 중심구도는 군인의 질적 우세 강화를 가져와 소규모 병력이 신속하게 전쟁을 종결짓는 군사변환체제를 이루었다(Chris Shepherd 2000).

냉전시기 50년간 미군은 공산국가인 소련, 중국, 헝가리, 루마니아 등을 견제하기 위해 아태지역과 서유럽을 중심으로 일본, 한국, 독일, 영국 등에 미군기지 및 군병력을 주둔시켰다. 그러나 냉전종식 후 2001년 9월 발표된 GPR 정책은 기존의 자유진영 중심의 미군기지를 3가지 기능별로 분류하였다. 첫째, 전략 중심기지로서의 허브기지(HUB)이다. 이는 대규모의 미군병력과 장비를 갖춘 영구적인 미군기지로서 일본·한국·독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전진 작전기지(FOB)이다. 이는 작전수행에 필요한 탄약과 장비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미군이 상주하는 기지로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아프가니스탄·터키·필리핀·싱가포르 등이 있다. 셋째, 전진 작전지역(FOL)이다. 미군이 1, 2년에 한 번씩 군사훈련을 실시

하는 국가로써 카자흐스탄·아제르바이젠·사우디아라비아·오만·케냐·말리 등이 해당된다. 아래 <그림 1>을 보면 2007년 해외주둔 미군기지 현황에서 과거 냉전시기와 달리 미국의 영향력이 중동과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까지 확장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1> 2007년 미군기지 해외주둔 재배치 현황¹⁴⁾

2003년 9월 호언(A.Hoehn) 미 국방부 전략담당 부차관보는 다시 GPR 정책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미군이 영구 주둔하게 될 전략중추기지는 미국 본토와 괌, 영국이다. 일본, 한국,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등에 있는 대규모 미군기지는 축소한다. 대신 중동, 중앙아시아, 남유럽, 아프리카지역 최첨단무기와 장비를 갖춘 소규모 병력만 주둔하는 전진작전기지를 설치하여 언제나 신속하게 병력을 순환할 수 있는 미군기지가 재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Washington Post* 2003/06/09). 이로 인해 미 국방부는 실질적으로 일본 도쿄에 주둔한 요코다(横田) 미군기지의 제5공군과 제13공군을 합병하여 미국령의 괌으로 이전하였다. 2003년 11월 25일 부시 대통령이 발표한 GPR 정책은 우리나라의 주한미군을 4년(2004-2008년) 동안 단계별로 12,500명을 감축¹⁵⁾하고 이들을 괌과 남중국

14) “해외주둔 미군 배치의 현황”, http://en.wikipedia.org/wiki/Deployments_of_the_United_States_Military. (2014년 6월 29일 검색)

15) 미국의 군사변환과 GPR로 인해 한국에 주둔한 미군, 즉 ‘주한미군’은 1단계(2004년) 5천 명, 2단계(2005년) 3천 명, 2006년 2천 명) 5천 명, 3단계(2007-2008년) 9

해, 중앙아시아, 중동지역 국가들로 재배치시켰다.

주목해야 할 것은 새롭게 마련한 GPR 정책이 석유수송로와 높은 유사성을 지닌다는 점이다. 석유자원을 확정짓는 중요한 요인에는 자원 확보와 자원 수송로의 안정성이 있다. 자국 내로의 안전한 석유운송을 위해서 송유관, 유조선 등 육·해상 수송로의 보호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육·해·공군의 적절한 배치가 요구된다. 미국은 실제로 1990년대 말부터 중동 산유국(6개국)과 중앙아시아 산유국(4개국), 그리고 석유수송 거점국가(7개국)¹⁶⁾ 등 5대양 6대주 전역에 미군기지 및 군사시설을 설치하여 자원과 운송통로를 확보하였다.

자원의 확보와 더불어 패권을 결정짓는 여러 요인 중 국방력은 단연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손꼽힌다. 미국은 세계1위 국방력, 세계1위 국방비 지출, 전 세계 국방비 지출 50% 점유율, 세계 무기시장의 35% 점유율, 군사 정보위성을 비롯한 첨단 모니터링 기술(CIA, NSA, NRO포함) 보유, 사이버 전쟁 능력 보유까지, 넘을 수 없는 패권적 지위를 확립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은 UN비토권 보유, NATO, 한미·한일동맹 등의 수많은 양자·다자 동맹은 ‘패권적 군사력’에 진입 불가능한 정치적 장벽을 건설하여 ‘패권 접근 불가능성’을 더욱 심화시켰다. 전 세계에 걸쳐 건설된 미군기지들이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다.

냉전 종식 후, 부시정부는 미국의 경제성장과 민생안전의 원동력을 한 정자원인 석유라고 인식하고 세계1위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자국의 실리

월 말) 2천 5백 명 등 12,500명이 감축이 되고 2009년부터 2만 5천여 명을 유지하게 된다. 또한 우리 정부와의 사전협의 없이 2004년 10월 22일에 주한미군 2개 헌병소대 70명을 이라크로 차출시켰고 2005년 1월 6일 주한미군 350명과 구난헬기 8대를 남중국해 국가로 이동시켰다. 주한미군의 재편으로 한국방위의 역할을 한국군에게 이양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주한미군은 북한위협에 대한 억제력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기동군의 신속대응군으로의 역할로 바뀌었다. 또한 주한미군은 중동에서 벵골만을 거쳐 말레카 해협에서 오키나와까지 해상수송로 보호와 관련하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해양안보구상(RMSI: Regional Maritime Security Initiative)이나 미사일방어(MD: Missile Defense) 공동망 계획의 참여하게 되었다.

16) 중동 산유국은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과 중앙아시아 산유국은 그루지아, 터키,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는 리비아, 나이지리아, 앙골라, 알제리, 석유거점국가에는 소말리아, 콩고, 세네갈, 말리, 가나, 가봉, 나미비아 등이 있다.

추구에 나섰다.¹⁷⁾ 냉전시대 승리의 조건은 정치적 이념의 지정학이었다. 그러나 탈냉전시대 승리의 조건은 경제적 이익의 지정학이 되었다(Oxford hand book of politics 2007). 이런 외교정책의 목표 변화의 선두 주자가 미국이라는 것을 제4장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의 사례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IV. 탈냉전기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현황

1. 아프리카 지역: 미-아프리카사령부(AFIRCOM)·리비아

(1) 미-아프리카사령부 창설과 미군기지·군사시설 설치

2004년 영국 석유회사의 만찬에서 딕 체니 부통령은 “전 세계 석유산업의 90% 이상이 정부와 국영석유공사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석유는 근본적으로 국가산업이다.”라고 연설하였다. 나아가 새로운 석유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프리카의 역할을 강조했다.¹⁸⁾ 반면 아프리카 국가들은 “미국이 아프리카 지하자원의 확보를 위해 테러조직 소탕이란 명분으로 내정간섭을 피한다.”며 거세게 항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9.11사태 이후, 아프리카 지역에 국제테러방지 및 인도적 자유민주주의 확산이란 명분으로 지부티, 니제르, 나이지리아, 세네갈, 케냐, 이집트, 소말리아, 앙골라, 부르키나파소, 모리타니 등 아프리카 거점국가에 미군기지 및 군사시설을 설치하였다(Volman & Daniel 2007). 이어 2008년 10월 1일 독일 스투트가르트(stuttgart)에 임시

17) 석유는 군사력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석유자원 확보’ 못지않게 이미 확보한 석유를 안전하게 자국 내로 유입하기 위한 송유관, 유조선 등 ‘육·해상 수송로’ 또한 보장되어야 하는 석유의 특성 때문이다. 이런 석유의 특성은 석유가 수송되는 육·해상의 주요 거점마다 각 육·해·공군을 배치시켜 석유의 안전을 확보해야 함으로 석유와 군사력은 매우 긴밀한 관계에 놓이게 된다.

18) <http://www.resilience.org/stories/2004-06-08/full-text-dick-cheneys-speech-institute-petroleum-autumn-lunch-1999>. (2014년 7월 9일 검색)

지휘본부를 둔 아프리카사령부(AFRICOM)를 창설¹⁹⁾하였고 11월에는 미국의 아프리카 해군기지(MARFORA: U.S. Marine Corps Forces Africa)를 설치하였다.

미국 중앙정보국에 따르면, 2008년 미국 전체 석유수입량 중 서아프리카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5%이며, 원유도입선 다변화 정책에 따라 2020년까지 35%로 늘어날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 지역은 미국의 경제이익의 전략적 요충지가 되는 곳이다. “2002년 미국국가안보전략” 문서에는 “미국이 자국의 자원안보와 전 세계 테러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아프리카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외교협회(CFR: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회장인 리처드 하스(Richard N. Haass)도 2006년 “인도주의를 넘어: 아프리카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의 보고서에서 “2010년 전후 서아프리카는 미국의 석유수입에서 중동만큼이나 중요한 곳이 될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부시정부가 이 지역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아프리카 1위 산유국인 나이지리아(세계7위)를 비롯하여 2위 알제리(세계10위), 3위 리비아(세계12위), 4위 앙골라 등이 밀집해 있는 서아프리카 기니만 연안에서 1990년대 확인된 석유매장량만 600억 배럴에 이르는 대형유전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보니아이트(Bonny light)로 불리는 서아프리카의 경질유는 황함량이 적어 정제비용이 적게 들고, 개발 중인 유전 대부분이 기니만 연안의 해상 대륙붕에 위치해 있어 펌프로 뽑아 올리기 쉽다. 따라서 송유관 건설도 필요치 않고 미국과 지리적으로도 가까워 유조선의 물류비도 적게 들며, 중동에 비해 지정학적 위험도 훨씬 낮다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 중동에 버금가는 서아프리카 기니만 지역은 안정적이고 값이 저렴한 석유자원을 들여올 수 있는 일거다득의 석유이권을 지닌 곳이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한 부시는 공화당 출신 대통령으로는 처음 2003년

19) 2008년 펜타곤은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미-아프리카사령부 창설을 위한 예산을 요청했다. 아프리카사령부의 부사령관이자 부행정관인 로버트 몰리(Robert Moeller)는 2008년 2월 미 국방대학교 연설에서 아프리카 지역이 지닌 전략적 가치를 강조했는데 특히 아프리카에서 미국과 중국의 자원경쟁과 더불어 석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아프리카사령부가 인도적 목적이 아닌 미국의 자원확보를 위해 설립된 것임을 보여준다.

7월 나이지리아·남아공·세네갈·우간다·보츠와나 등 아프리카 5개국을 순방하였다. 부시는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5년간 에이즈 퇴치기금으로 150억 달러 지원하고, 빈곤퇴치를 위한 각종 경제원조과 함께 군사지원도 강화하였다. 이것은 아프리카의 자원이 미국과 부시정부에게 얼마나 중대한 사안인지를 시사한다. 미국은 21세기 들어 석유자원 확보와 안전한 석유 수송을 위해 아프리카의 국가에 미군기지와 군사시설을 배치하고 있는 중이다. 상위에 제시한 GPR의 분포도가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국은 2001년 9.11사태 이후 말리를 비롯한 북아프리카 4개국에 6억 2000만 달러의 비용을 드린 대테러리즘 훈련을 실시하였고, 이집트와의 합동군사훈련에도 미국은 약 1만 4천 명의 병력을 파견했다(US department of state (n.d.)).²⁰⁾ 아프리카사령부가 창설되기 전, 미-유럽사령부(EUcom)²¹⁾는 2003년부터 서아프리카에서 활동을 크게 늘려 앙골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미비아를 비롯한 세네갈, 말리, 가나, 가봉에 비행기 활주로를 건설하고 미군병력을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는 군사시설을 마련했다(Rahpehl et al. 2011). 한편 미 해군은 2005년 6월 여름맥박 04(summer pulse 04)라는 코드명으로 사상 최초로 항공모함 해리트루먼(Harry S. Truman)호를 기니만 지역에 파견했다. 나이지리아에는 해안 순찰용으로 군함 4척을 무상지원하고 상투메프린시페(Sao Tome and Principe)에 해군기지를 건설했다.²²⁾ 이 밖에도 미국은 알카에다가 아프리카에 침투하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미 육군 제10특수부대 소속병력 200명씩을 모리타니·말리·차드·니제르 등에 배치하였다(『이코노미스트』 2004).

아프리카에서 가장 중요한 미군기지는 아프리카 북동부에 위치한 지부

20) 미국과 이집트는 1981년부터 2년마다 ‘브라이트 스타’라고 불리는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해왔다. 이집트는 미국의 군사원조를 이스라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받고 있는 국가이다.

21) 미-유럽사령부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기치 아래, 아프리카의 이슬람 테러조직들을 분쇄한다는 명분으로 2004년 3월 ‘살라피스트’라는 이슬람 무장조직을 겨냥한 군사작전을 수행했다. 2005년 서아프리카 국가들의 합동군사훈련인 ‘부딕돌 총작전’에 미군 특수부대가 약 1,000명 이상 투입됐다.

22) 미국 해군청, http://www.navy.mil/local/story_archive.asp?id=61. (2014년 7월 10일 검색)

티(Djibouti)이다. 1,800명의 미군이 주둔한 지부티는 소말리아, 수단, 에티오피아의 아프리카 내륙과 중동지역의 홍해를 접하고 있는 해상교통의 요충지이다. 지부티는 전 세계 석유생산량의 4분의 1이 통과하는 해상수송로의 주요 거점국가이다. 지부티가 미군기지 주둔을 승인하면서, 미국이 제일 먼저 한 일이 하워드(Howard)호를 비롯한 군함 6척을 파견한 것이었다(CNV 2013). 이로 인해 미국은 중동과 기니만 연안에서 공급받은 석유의 해상수송로를 관할할 수 있게 되었다.

아프리카의 석유자원과 석유수송로 확보를 위한 미국의 군사개입 확대는 동시에 미국 석유기업들의 투자확대를 가져왔다. 미국의 석유기업들은 아프리카의 주요 4대 산유국들인 나이지리아, 리비아, 앙골라, 알제리뿐만 아니라 가봉, 적도기니, 콩고 등의 대부분의 석유자원을 확보했다. 하루 250만 배럴을 원유생산하고 있는 아프리카 1위 산유국 나이지리아는 미국 석유수입량의 10%를 차지하는 미국의 주요 석유공급처로, 나이지리아 석유총생산량의 60%를 이미 엑손모빌, 셰브론텍사코, 코코노필립스 등 미국 석유기업이 장악했다.²³⁾

또한 확인된 석유매장량만 114억 배럴에 이르는 아프리카 4위 산유국 앙골라도 미국의 엑손모빌과 셰브론텍사코, 코코노필립스 등이 석유채광권을 대부분 차지했고 엑손모빌은 차드와 카메룬 정부의 대규모 송유관 건설을 맡았다. 2006년 5월 기니만 연안을 모두 9개 광구로 나뉘, 석유매장 여부를 확인하는 탐사권에 대한 국제입찰이 붙자, 셰브론과 엑손모빌, 코코노필립스 등 미국 석유기업들이 경쟁을 벌였다. 이미 이 지역의 유전지대에 미국의 석유기업들은 1995년부터 2010까지 15년간 7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였다.

위에 상술한 바와 같이, 부시정부 이전에는 살펴볼 수 없는 대대적인 미군의 재배치와 군사력 증강이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앞서 아프리카 자원의 중요성을 언급한 딕 체니 연설문과 아프리카 국가를 처음

23) 나이지리아 정부와 미국 석유기업들은 정경유착으로 1993년 엑손모빌과 웰은 봉가(Bonga) 지역 유전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셰브론텍사코는 2002년부터 5년(2002-2007년)간 50억 달러를 투자했고 향후 5년(2008-2013년)간 200억 달러를 추가 투입중이다. 셰브론텍사코가 착수한 아그바미(Agbami) 지역 해저 유전개발이 완료되었고 엑손모빌도 역시 17억 달러를 투자했다.

으로 순방한 부시 대통령의 외교행보는 이 지역의 풍부한 석유자원 확보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불량국가에서 친미국가로 돌아선 ‘리비아’

리비아는 1959년에 유전이 발견된 이래, 아프리카 3위 산유국이자 석유 수출기구(OPEC)와 아랍석유수출기구(OAPEC: Organization of Arab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의 주요 회원국이다.

미국이 지정한 악의 축의 불량국가 중 하나였던 리비아가 25년(1979-2004년) 만에 친미국가로 전향한 핵심 원인에는 석유자원이라는 공통분모가 존재했다.²⁴⁾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 직후 미국 에너지정보국은 바로 관계 정상화를 통해 EOR(Enhanced Oil Recovery)기술을 수출하여 리비아의 석유를 확보할 계획을 발표했다. 리비아가 미국의 공격대상에서 제외가 된 것은 21세기 들어 세브론텍사코, 마라톤오일(Marathon Oil), 코코노필립스, 아메라다헤스(Amerada Hess) 등 미국 석유기업이 카다피(Muammar Gaddafi) 대통령을 수차례 접견한 공헌이 크다(Kaim 2012). 미국의 국내 석유부족현상으로 수입선의 다변화를 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24) 리비아의 석유는 국가 총수출의 95%를 차지하고 있어, 리비아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요소이다. 그러나 1969년 쿠데타로 리비아 왕정을 폐지시키고 정권을 획득한 카다피 대통령은 사회주의, 반서방국가, 범아랍주의, 범이슬람주의 정치노선을 가진 자로 미국과 불편한 관계를 지속해 왔다. 실제로 그는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정부와 이슬람 단체, 급진주의 운동 및 납치, 폭파, 살인 테러 등에 자금을 지원하였다. 미국은 이러한 카다피의 정치적 행보를 서방국가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고 1979년 리비아 주재 미국대사관을 폐쇄를 시작으로 1986년 1월 미국 내 리비아 자산동결, 리비아에 주재한 미국 석유기업 철수 및 미국인 완전철수, 무역거래금지 등의 경제제재를 가하였다. 더불어 미국은 1986년 4월 트리폴리에 있는 카다피 지도자 숙소 및 병까지의 주요시설을 폭격하였다. 또한 1988년 12월 영국에서 발생한 로커비 사건인 팬암기 폭파범으로 지목한 리비아인 2명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리비아가 거절하면서, 미국과 영국은 UN안보리를 통해 1992년 3월 항공기 운항금지, 무기금수 조치를 취하였다. 이듬해 1993년 11월 해외자산 동결, 석유관련 장비금수와 1996년 8월 이란-리비아 제재법(ILSA: The Iran-Libya Sanctions Act)을 시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리비아를 압박해 왔다. 양국 간의 화해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부시정부는 2001년 1월 29일 리비아를 악의축인 불량국가로 지정했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공격 후, 다음 악의 축의 대상국으로 리비아를 지목했다.

아프리카의 3위 산유국인 리비아는 미국에게 무시할 수 없는 국가이다. 때문에 미국 석유기업의 잦은 리비아 방문은 불안정하던 카다피 정권과 미국이 외교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

2004년 당시 약 40년간 독재자로 장기집권을 지켜온 리비아의 카다피 대통령은 정책적 자유가 허용되지 않았다. 이라크전쟁으로 후세인 정권의 붕괴²⁵⁾를 목도한 리비아에게 단 하나 남은 원용 가능한 결정은 미국의 석유기업들을 통하여 부시정부와 협상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카다피 정권과 리비아의 안보를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 말하자면 미국은 리비아의 석유자원이 필요했고, 카다피 대통령은 독재정권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했다. 때문에 양국의 교집합적 상호 이해관계하에서 석유자원을 매개로 두 국가는 관계정상화를 이루었다. 이것이 바로 카다피 정부가 지난 25년간의 반미관계를 깨고 친미관계로 돌아서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이다.

실제로 카다피 정부는 2003년 12월 대량살상무기 포기과 미국-리비아 양국 간의 최대 현안이었던 로커비 펜암기 폭파(Lockerbie bombing)²⁶⁾ 사건에 대한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을 합의하였다. 미국은 이듬해 2004년 리비아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하였고 2006년 5월 15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리비아를 삭제함과 동시 양국관계를 복원 및 정상화하였다. 이어 2007년 10월 미국 콘돌리자 라이스(Condoleezza Rice) 국무장관이 리비아를 방문함으로써 양국 간의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미국은 리비아와의 관계 회복을 통해 석유확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2005년 1월 31일 리비아가 원유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허용한 이래, 처음 실시된 15개의 유전탐사와 채굴권에 관한 국제입찰에서 미국 석유기업(옥시덴탈 9개, 세브론텍사코 1개, 아메라다헤스가 1개)들이 11개

25) 후세인은 1979년 이라크 대통령된 후 27년간 독재정권을 유지했다. 그는 쿠웨이트를 기습 점령하여 걸프전을 일으키지만 패배하였다. 2003년 이라크가 보유한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미국과 이라크 사이에 전쟁이 발발, 패배 후 체포되어 2006년 12월 30일 사형당했다.

26) 1988년 12월 21일 뉴욕행 펜암 103기가 스코틀랜드 남부에 위치한 로커비 마을을 지나던 중 폭발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미국인 189명을 포함하여 탑승객 전원과 마을 주민 11명 등 270명이 사망했다. 이 사건은 미국이 1986년 4월 리비아를 공습한 것에 대한 보복성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의 배후인물로 카다피 대통령이 지목되었으나 2011년 8월 사망하였고, 이후 유일한 핵심인물로 알 메르라히마저 사망하면서 로커비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은 종결되었다.

를 수주했다. 이어 2005년 10월 리비아 광구 입찰에서 미국 석유기업 엑손모빌이 대형분지인 키레나이카(Cyrenaica Basin) 44광구의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또한 19년간의 공백을 깨고 지난해 리비아와의 석유개발 협력을 재개한 마라톤오일, 코코노필립스, 아메라다헤스 등 미국 석유3사는 리비아행 석유시추장비를 선적하는 데 따르는 번거로운 행정절차에서 간소화했으며, 석유협상을 위해 트리폴리를 방문하려는 미국 관리들의 비자 취득도 단일화되는 등 양국의 자원협력이 가시화되었다(Zoubir Yahia H 2002).

이처럼 25년간 단절되었던 리비아와의 국교 정상화에서 미국 석유기업과 에너지정보국은 촉매제 역할을 담당하였다. 리비아 내 GPR의 역할은 리비아 석유를 과점하는 미국 석유 기업들은 보호하는 것이다.

2. 중동지역 사례: 쿠웨이트·이라크

(1) 쿠웨이트(걸프전쟁: 1990년 8월 2일-1991년 2월 28일)

워커 부시 대통령은 1990년 8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대한 연설에서, 쿠웨이트와 이라크의 석유자원을 언급하며 “미국 석유소비의 절반 이상은 중동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동의 불안정한 상황은 미국과 전 세계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의 연설에 따르면, 미국이 걸프전에 군사개입을 하게 된 원인이 석유자원임을 알 수 있다.²⁷⁾

예전부터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주요 석유수입국이다.²⁸⁾ 그러나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²⁹⁾하게 되면 석유소비량 세계1위인 미

27) <http://millercenter.org/president/speeches/detail/5529>. (2014년 7월 9일 검색)

28) 쿠웨이트는 동·서 등거리 외교원칙에 입각하여 미국에 대하여 중립적인 태도를 취해 왔으나 1985년 쿠웨이트 항공기 납치 및 국왕 피격 사건시, 미국의 신속한 태도 표명으로 양국은 돕는 공생관계가 되었다.

29) 1990년대 쿠웨이트는 석유수출기구(OPEC)가 지정한 할당량을 넘어선 판매로 석유가격을 낮추는 주범이 되었다. 후세인은 이란과의 전쟁을 통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각 아랍국들은 자신의 경제적 부담을 분담해야 한다고 여겼다. 그는 쿠웨이트에게 100억 불의 차관과 부채에 대한 탕감을 요청했으나 쿠

국이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석유를 수입하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중동지역에서 원활한 미국의 석유 확보는 미국의 경제안정과 국익에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걸프전에 적극 개입하였다. 미국과 더불어 UN다국적군이라는 이름으로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참여한 이유는 세계 5대 석유기업들이 이들 국가에 해당되기 때문이고 석유자원을 둘러싸고 경제적 이권을 얻기 위한 각 국가들의 각축전이기에 결국 걸프전은 미국이 주도한 UN의 다국적군의 일방적인 승리로 종결됐다. 이를 계기로 미국은 석유자원 확보에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비롯하여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오만 등 중동의 대부분의 지역에 미군기지를 주둔시키고 군사력을 증강시켰다.

걸프전쟁을 계기로 미국은 쿠웨이트 수출입국의 1위 국가가 되었고 쿠웨이트는 경제적·군사적인 모든 면에서 미국기업에게 우선권과 특혜를 부여하는 등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KOTRA 2005/12). 또한 외교정책의 최우선을 주권국가로서의 안전보장에 중점을 두어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등 서방국가들과 방위조약을 체결하였고 이라크 전에서는 미국에 ‘전진기지’를 제공함으로써 친미성향을 보여주었다.

위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은 미국의 안정적 석유공급에 대한 위협이며, 걸프 전쟁과 쿠웨이트 내 GPR 역시 석유자원의 확보와 안전을 위한 조치로 재해석 될 수 있다.

(2) 이라크(이라크전쟁: 2003년 3월 20일-2011년 12월 15일)

미국은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 러시아, 중국을 포함한 유엔의 반대에도 불구하고³⁰⁾ 2003년 3월 이라크전쟁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라크를 악의축인 불량국가로 지정하여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 사담 후세인의 독재정권 타파, 이라크의 민주화를 명분삼아 최첨단 무기와 병력으로 일방적인 선제공격을 감행하였다. 이 전쟁을 계기로 2003년 미국은 이라

웨이트가 거절함에 따라 후세인은 쿠웨이트를 침공하기로 결정했다.

30) UN사찰단은 이라크가 9.11사태의 배후로 지목되는 알카에다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어떠한 증거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후세인이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생화학무기와 대량살상무기가 없다고 밝혔다.

크에 135,000명, 쿠웨이트 44,800명, 사우디아라비아 4,408명, 바레인 4,200명, 카타르 3,300명, UAE 390명, 오만 260명 등의 약 20만 명의 미군병력과 기지를 주둔시켰다(Raphel et al. 2011).

8년간 지속된 이라크 전쟁은 2011년 12월 15일에 종결되었다. 이 전쟁은 4,400명의 미군과 10만 명 이상의 이라크 민간인의 사망자와 약 200만 명의 난민을 낳았고, 미국은 3조 달러 이상의 엄청난 전쟁비용을 지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주장하던 이라크의 민주정부와 민주제도 건설은 실패한 상태다. 게다가 UN사찰단은 알카에다와 관련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고, 후세인이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생화학무기와 대량살상무기도 없었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이라크전쟁이 종결된 후에도 여전히 쿠웨이트 29,000명, 바레인 7,000명, 카타르 7,000명, 아랍에미리트 3,000명, 사우디아라비아 250명 등 약 5만 명의 미군을 여전히 걸프지역에 주둔시켰다(홍성민 2011).

부시 대통령은 2006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라크 주둔 미군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미군이 철수할 경우, 이라크의 막대한 석유자원들이 테러리스트에게 넘어갈 것이며, 이들이 석유를 무기로 사용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라크 주둔 미군이 조기 철군할 경우, 유가가 배럴당 3-4백 달러로 폭등할 것이다.”라고 밝히며 미국의 이라크 주둔이 석유자원 확보와 안정적인 유가의 유지를 위한 조치임을 명시했다. 이라크 내 미국의 석유자원 확보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 방향에서 검토될 수 있다(Washington Post 2006/05/11).

첫째, 이라크는 세계3위 석유매장량 국가로, 확인된 매장량만 1150억 배럴인 자원부국이다. 미국 에너지정보국(EIA)에 따르면 이라크 석유는 고품질로 탄소 함유량이 높고 황 함유량은 적다. 매장량도 풍부하며 전체 유전의 3분의 1정도가 육상유전으로 600m 정도만 파면 석유가 나와 석유채굴비용도 배럴당 1달러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³¹⁾ 게다가 이라크 원

31) 비교적 생산단가 낮다는 오만이나 말레이시아도 배럴당 \$5 정도가 들고 멕시코와 러시아가 약 \$6-8 정도, 북해산이 약 \$12-16 정도, 텍사스의 경우 \$20 정도 든다. 미국산 석유의 경우 국제유가가 \$20 미만으로 조성될 때에는 채굴할수록 손해를 본다는 뜻이다. 이라크의 양질의 방대한 양의 석유는 전체적으로 3조 2천억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으며 전체 개발비용 1,880억 달러를 제외하고도 큰 이윤이 남는다. 이를 연도별로 환산하여 이라크 정부와 미국이 50/50으로 이익을

유는 0.19%만 채굴한 상태여서 앞으로 100년 동안 90% 이상을 더 채굴할 수 있다(EIA 2007; BP 2008). 석유고갈현상으로 국가경제에 적신호가 켜진 미국 입장에 있어서, 값이 저렴한 고품질의 이라크 석유는 국가안보에 필수적이다.

둘째, 미국 석유기업들이 이라크 유전개발권을 되찾기 위함이다. 미국 석유기업들을 포함한 세계 메이저 석유기업은 1920년대부터 이라크 유전의 온전한 100% 개발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72년 이라크가 유전채굴업을 국영화로 돌리면서 이들 기업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때문에 미국은 걸프전쟁에 개입하였고, 걸프전쟁 후에도 미국 석유기업들은 비밀리에 이라크 정부와 거래를 시도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걸프전쟁의 패배로 미국에 반감을 품은 이라크 정부는 1997년 프랑스의 석유기업인 토탈(TotalElfina)과 중국의 국유석유기업인 CNPC(China National Oil Company), 러시아의 루크오일(Luk oil) 등과 수천 억 달러의 유전채굴권 계약을 성사시켰다. 또한 경제제재 조치가 풀리는 즉시 발효되는 이러한 계약들에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의 석유업체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석유자원의 확보는 미국의 국가이익 측면에서 이라크전쟁을 이해할 수 있다. 2007년 2월 26일 전쟁 중, 개정 승인된 이라크 석유법은 미국 석유기업이 이라크 유전을 선점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바뀌었다. 미국의 압력으로 추진된 이라크 석유법은 이라크 석유사업 분야를 외국기업에 개방하는 것 즉, 외자허용으로 이라크 유전 3분의 2가 넘어갈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³²⁾ 이로 인하여 미국의 엑손모빌, 텍사코 등의 석유기업들은 이라

나눈다면 매년 수익이 약 3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에 이르게 된다. 현재 세계 5대 정유기업을 다 합친 이익금이 연간 약 440억 달러 정도로 봤을 때 그 이익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 이라크의 석유법 초안은 8개월에 걸쳐 미국정부가 고용한 미국 컨설팅 기업 베어링 포인트(Bearing Point)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고 이후 메이저 석유기업들과 국제통화기금(IMF)에 넘겼다. 부시정부는 석유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말리키(Maliki) 내각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석유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부시정부가 주도한 이라크 전쟁은 그의 임기가 끝난 후, 오바마 정부가 뒷수습을 하였다. 이 석유법은 외국기업의 이라크 석유사업 참여는 대폭 보장하면서도 이라크 중앙정부의 통제력은 약화시키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이라크는 미개발 유전시추 권한을 외국기업에 양도하고, 미개발 유전에 대하여 이라크 내 국·민영 기업과 외국 기업 간에 차별없이 개발 우선권을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이라크 연방 석유·가스 위원회(유전 개발 관련 계약 최종

크 석유사업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과거 잃어버렸던 유전개발권을 획득하였다.

딕 체니 부통령이 회장을 맡았던 석유기업인 헬리버튼은 이라크전쟁 후, 이라크 재건사업을 단독으로 맡았고 이라크 석유관련의 핵심계약을 대부분 성사시켰다. 더불어 세브론은 이라크 서부의 쿠르나 유전(West Qurna oilfield)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유전은 이라크의 10대 석유 매장지중 하나로 약 150-210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곳이다(Balhasan et al. 2013).

이처럼 이라크 전쟁은 석유확보를 위해 미국이 취한 가장 급진적이면서도 필수적이었던 조치였다. 그 후 이라크 내 GPR이 수많은 부정적 여론을 양산하며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패배의 가능성을 높였지만, 회군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부시 대통령 자신이 직접 언급한 대로, 이라크 내 미군은 테러리스트로부터 석유자원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3. 중앙아시아 사례: 아프가니스탄·카스피해 BTC 송유관

(1) 아프가니스탄(아프가니스탄전쟁: 2001년 10월 7일-2014년 2월)

부시정부는 9.11사태의 용의세력인 알카에다 조직의 근거지로 아프가니스탄을 지목하고 테러조직 와해 명분으로 아프가니스탄전쟁을 일으켰다. 이 전쟁으로 미국은³³⁾ 아프가니스탄에 10만 명의 미군을 파병했고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등 5,000명 이상의 미군병력을 주둔시켰으며 무려 9개 주변국가에 미군기지를 건설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에 미 공군기지를 타지키스탄과 파키스탄에 군사시설³⁴⁾을 설치하여 아프가니스탄을 원천봉쇄하였다.³⁵⁾

결정권자)를 창설하여, 내부 인사에 해외석유 기업들이 진출하도록 한다(송무현 2009).

33) <http://www.cfr.org/kyrgyzstan/asia-us-military-bases-central-asia/p8440>. (2014년 7월 3일 검색)

34) 아프가니스탄에는 Joint Military Bases-Kandahar International Airport,

9.11사태가 발생하기 전, 구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공산주의 사회의 확대를 우려한 미국은 탈레반 세력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원조와 군사훈련 및 기술을 이전하였다. 그러나 9.11사태 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이 테러집단을 은닉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선제공격을 감행하였다. 아직도 국제사회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진정한 공격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다양한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2004년 12월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은 “적들이 우리를 침략한 가장 큰 이유는 석유를 훔치기 위한 것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강도짓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라.”며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 목적을 시사했다(Williams et al. 2007)

9.11사태 발생 직후, 미국 에너지정보국은 “아프가니스탄이 중앙아시아와 아라비아 해의 석유와 천연가스의 수입에 있어 지리적으로 전략적 함의를 지닌다.”고 발표했다.³⁶⁾

아프가니스탄전쟁이 미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발발되었다면, 석유자원 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지리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은 중앙아시아의 석유자원과 석유수송에 대한 거점의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9.11사태 이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의 TAP 송유관 건설이 결렬됐다.³⁷⁾ 이

Shindand Air Base / Air Force Bases-Bagram Air Base / Marine Corps Bases-Camp Dwyer, Camp Leatherneck, FOB Delaram 총 6개의 미군기지를 가지고 있다. 한편 키르기스스탄의 마나스 공군기지는 15,000명의 미군과 500톤의 물자를 매달 아프가니스탄으로 이동시키는 기지이다. 우즈베키스탄에는 카르시 공군기지가 있다.

35) <http://militarybases.com/overseas/afghanistan>. (2013년 4월 5일 검색)

36) <http://www.commondreams.org/views01/1208-04.htm>. (2014년 7월 8일 검색)

37) 미국의 석유기업인 유노칼(Unocal)은 1997년부터 카스피해 지역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인도양으로 수송하는 데 있어, 아프가니스탄 관통하는 송유관 건설을 추진해 왔다. 아프가니스탄은 잠재적인 자원 활용성과 함께 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TAP)을 잇는 총길이 1,470km에 해당하는 이 TAP 송유관은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크다. 이 송유관이 인도까지 연결될 경우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를 잇는 석유와 가스의 공급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지기 때문이다. 송유관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프가니스탄의 안정이 필요했고 미국은 탈레반 정권이 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로 인해 미국은 탈레반 정권에 경제적 지원과 무기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탈레반 정권은 자신의 이권 확대를 위해서, 미국의 유노칼과 아르헨티나의 브리다스(Bridas Corporation) 석유기업 사이에서 저울질을 계속해 왔다.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미국은 때마침 발

로 인해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의 풍부한 석유·가스의 확보가 무산되었고 중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 또한 감소하였기 때문에 이에 불만을 품은 미국이 대테러 명분으로 아프가니스탄전쟁을 야기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지리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은 석유자원과 수송에 중대한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국이 위와 같은 내용을 9.11사태 이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전쟁 직전에 발표하였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의 GPR 역시 동일한 의미에서 분석될 수 있다.

(2) 카스피해 BTC 송유관

부시정부 시기 국무장관이었던 콘돌리자 라이스는 2008년 2월 외교위원회(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에서 중앙아시아와 카스피해 지역의 파이프라인 건설과 자원확보는 국가이익이 걸린 사안이라며, 조속한 에너지 조정관리자(energy coordinator)의 임명과 역할의 중요성을 제기했다.³⁸⁾ 딕 체니 부통령도 석유업계 대표들에게 “자고 일어나니, 카스피해 만큼 중요해진 지역이 없었다.”고 발언하여 이 지역의 자원확보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³⁹⁾

중앙아시아 신생독립국들(CIS)은 풍부한 석유와 천연가스를 가진 자원 부국이다. 특히 21세기 자원보고로 부상한 카스피해 연안은 2,000억 배럴의 원유와 600조m³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 이는 전 세계 원유의 20%, 천연가스의 13%에 해당된다. 그 결과, 유전개발권과 송유관의 육상 수송로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 간의 경쟁이 치열한 곳이다(Bailes 2003). 미국은 현재 아제르바이잔,⁴⁰⁾ 그루지야, 터키에 건설한 BTC 송유관 보호

생한 9.11사태로, 오사마 빈 라덴을 중심으로 한 탈레반 정권을 겨냥하여 대테러 전쟁이란 대외명분으로 아프가니스탄에 군사공격을 감행하게 되었다(Stephen 2007).

38) <http://www.milestonedocuments.com/documents/view/condoleezza-rices-transformational-diplomacy>. (2014년 7월 9일 검색)

39) <http://www.historycommons.org/context.jsp?item=a062398cheney>. (2014년 7월 9일 검색)

40) 아제르바이잔 아스타라에는 미국 레이더 기지가 있다. 미국은 세계 2위 석유매장

와 국제테러방지, 신생독립국의 자유민주주의 확산을 목적으로 미군기지 주둔, 군사고문단 파견, 합동군사훈련 실시, 경제적 지원 등을 실행 중이다. 미국이 이 지역의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세계 5분의 1의 석유자원이 매장되어 있고, 에너지 수송로가 갖는 경제적·정치적 가치 때문이다. 자원확보와 더불어 냉전시절 러시아의 영향권이었던 이 지역에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 또한 담겨 있다 (Blank 2007).⁴¹⁾

미국은 이 지역에 러시아의 CPC 송유관(2001)을 설치한 것을 염두하고, 아제르바이잔의 바쿠(Baku)에서 그루지아의 트빌리시(Tbilisi)와 터키의 세이한(Ceyhan) 등 친미국가를 거치는 BTC 송유관을 2005년 5월 25일에 완공하여 가동 중이다. BTC 송유관은 총연장이 1,768km이며 아제르바이잔 2개, 그루지야 2개, 터키 4개 등 총 8개의 가압소(pumping station)를 설치했다. 이어 중국도 2006년 중국-카자흐스탄 송유관을 완공함으로써 카스피해 석유를 둘러싸고, 강대국 간 에너지 경쟁 삼각구도를 형성했다(김송죽 2013).

미국 석유기업인 엑손모빌은 카자흐스탄의 카샤간(Kashagan) 유전과 탱기즈(Tengiz) 유전, 아제르바이잔의 ACG(Azeri-Chirag-Gunashli) 유전 등 세계 최대 규모의 유전개발사업에 참여 중이고 탱기즈 유전의 25%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밖에도 미국의 석유기업 운영권자로 쉘(16.67%), ENI(16.67%), 코코노필립스(8.33%), BG(16.67%) 등이 있다.

이처럼 냉전시기 접근이 불가능하던 카스피해 지역에 미국은 미군기지 건설, 경제적 지원 등 다각적인 전략으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량국가인 이란의 공격기지로 아제르바이잔을 선정하였다. 2009년 5월 25일 그루지아의 '트빌리시' 외곽에 위치한 바지아니 기지에서는 미군과 그루지야군의 합동훈련인 '창기병 합동 2009'가 실시되었다.

41) 카스피해 및 중앙아시아에서 미국의 국가이익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 이란, 중국으로의 접근성 둘째, 이들 국가의 민주화와 안정을 위한 정치, 경제적 개혁과 현대화 셋째, 중앙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석유, 천연가스 등의 자원이다.

V. 결론

본 논문은 탈냉전시기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사례를 통하여 군사력과 석유자원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탈냉전시기 미국의 주도하에 치러진 3차례의 전쟁인 걸프전, 아프가니스탄전, 이라크전과 카스피해 BTC 송유관, 불량국가에서 친미국가로 전향한 리비아, 미-아프리카사령부 (AFRICOM) 창설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은 석유라는 경제적 이익과 부시정부의 주요 외교정책결정그룹의 집단사고 때문에 해외주둔 미군기지를 산유국이 밀집해 있는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으로 재배치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미국의 외교정책결정과정에서 있어서 석유자원의 지경학적 힘과 집단사고이론이 적용됨을 분석하였다. 즉, 경제적 이익이 거시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주요 정책결정자들의 개인적 배경과 집단사고가 미시적 요인으로 작동하였다.

다음으로 본 논문은 GPR의 수사적 목적에 집중된 종래의 연구 한계를 극복하고, GPR 그 자체의 실질적 목적을 밝혔다는 데 함의를 제공한다. 9.11사태 이후 부시정부는 세계경찰국가를 자처하며 세계질서유지, 국제테러방지, 자유민주주의 확산, 인권수호 등의 대외적 명분으로 세계1위의 군사력을 대동하여 실제적으로는 석유자원의 선점에 있어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반하는 산유국들과 전쟁을 감행했다.

그 결과 미국은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의 산유국과 석유수송 거점 국가에 미군기지 및 군사시설을 설치하였다. 부시정부의 인권수호로 위장된 외교정책의 실질적 목적이 경제적 이익인 석유자원에 있으며, 더 나아가 거시적으로는 군사정책을 통한 경제적 이익 추구가 국제관계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지경학적 힘’을 보여주었다. 결국 석유자원이라는 경제적 이익의 동기가 미국의 군사력 강화를 가져왔고 나아가 미국은 강성권력 (hard power)인 경제력과 군사력을 더욱 공고화함으로써 초강대국의 자리를 고수하려 했음을 시사한다.

| 참고문헌 |

- 김광용 (2003). “북핵문제의 현황과 향후 전개방향 전망: 주한미군 재배치론 대두와 미국의 이라크전의 영향과 관련해서.” 『아태지역동향』. 제135권. pp. 18-29.
- 김송죽 (2013). “중국 국제송유관 건설의 정치경제: 중국-카자흐스탄 송유관 (2006·2009) 건설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1집. 1호, pp. 135-162.
- 김영호 (2004). “부시독트린의 의미와 한계.” 『韓國政治外交史論叢』. 제26집. 제1호, pp. 449-473.
- 김진기 (2007). “주일 미군 재배치의 배경과 전략적 의도; 미·일 양국의 국방정책 지침서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42호, pp. 95-117.
- 송무현 외 (2009). “이라크 석유법을 통해본 자원개발 전망과 시사점.” 『한국중동학회논총』.
- 최아진 (2010). “한미동맹 정책의 굿 거버넌스: 주한미군기지 재배치 과정을 중심으로.” 『동서연구』. 제22권. 제1호, pp. 115-143.
- 한국수출입은행 (2006). 『이라크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한국수출입은행.
- 홍성민 (2011). “이라크 전쟁 종결과 향후의 과제.” 중동경제연구소.
- 홍성원 (1997).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 지역 원유의 정치경제.” 『러시아 지역연구』. 제1권.
- Ariel Cohen (1996). “The New Great Game: Oil Politics in the Caucasus and Central Asia.”
- Balhasan, Saad A. & Towler, Brian F & Miskimins, Jennifer L. (2013). “Modifying the Libyan fiscal regime to optimise its oil reserves and attract more foreign capital part 1: LEPSA I proposal.” *OPEC Energy Review* Vol. 37. No. 2, pp. 220-246.
- BP (2008).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 Charles L. Glaser (2013). “How Oil Influences U.S. National Security.” *International Security*. Vol. 38. No. 2.
- David G. Winter & Margaret G et. al. (2005). “The Personalities of Bush and Gorbachev Measured at a Distance: Procedure, Portraits and Policy.” *American Foreign Policy*. Princeton University.
- Dina Badie (2010). “Group Think, Iraq, and the War on Terror: Explaining US

- Policy Toward Iraq.” *Foreign Policy Analysis*. No. 6, pp. 273-296.
- Fouskas, Vassilis (2005). *The New American Imperialism: Bush's war on terror and blood for oil*. Westport, Conn.: Praeger Security International.
- Gills, Barry et al. (1993). *Low-Intensity Democracy: Political Power in the New World Order*. London: Pluto Press.
- Gorm Rye Olsen. (2014). “Fighting terrorism in Africa by proxy: the USA and the European Union in Somalia and Mali.” *European Security*. Vol. 23. No. 3.
- Julien Mecille (2008). “The Radical Geopolitics of US Foreign Policy: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Logics of Power.” *Political Geography*. No. 27.
- Klieman, Kairn (2012). “U.S. Oil Companies, the Nigerian Civil War, and the Origins of Opacity in the Nigerian Oil Industry.” *Journal of American History*. Vol. 99. No. 1, pp. 155-165.
- Lenoczowski George (1990). *American Presidents and the Middle East*. Durham, NC: Duke University.
- Michael Cox et al. (2000). *American Democracy Promotion*.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Moravcsik Andrew (1997). “Taking Preferences Seriously: A Liberal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Autumn. pp. 513-553.
- Philip E. Tetlock & Charles B. (1986). “Cognitive Perspectives on Foreign Policy.” *In Political Behavior Annual*. 1. Westview Press.
- Philippe Le Billion (2004). “The Geopolitical Economy of ‘Resource Wars.’” *Geopolitics*. Vol. 9. No. 1.
- Raphel, Sam, Stokes, and Dou. (2011). “Globalizing West African oil: US ‘energy security’ and the global economy.” *International Affairs*. Vol. 87. No. 4, pp. 903-921.
- Robert Jervis (2003). “Understanding the Bush Doctrine.” *Political Science Quarterly*, p. 118.
- Robinson, William (1996). *Promoting Polyarchy: Globalization, US Intervention, and Hegemony*. New York, NY: Cambridge Univ. Press, pp. 623-627.
- Stephen J. Blank (2007). *US Interest in Central Asia and the Challenges to*

- Them*. Pennsylvania: Strategic Studies Institute, pp. 1-17.
- Steven B, Redd and Alex Mintz (2013). "Policy Perspective on National Security and Foreign Policy Decision Making." *The Policy Studies Journal*. Vol. 41. No. 51.
- USEA: The United States Energy Association. US-Toward National Energy Strategy. February, 2001.
- Vernon Loeb & Thomas E. Ricks "Bush Speeds Missile Defense Plan." *Washington Post*. July 21, 2001.
- Volman, Daniel (2007). "US to Create New Regional Military Command for Africa: AFRICOM." *Review of African Political Economy*. Vol. 34. No. 114, pp. 737-744.
- Zoubir, Yahia H (2002). "Libya in US foreign policy: from rogue state to good fellow?" *Third World Quarterly*. Vol. 23. No. 10, pp.31-53.
- George, William Lloyd. "After Botched U.S. Raid, Somalis Fear Looming War With Al-Shabab." *Times*. October 9, 2013.
- "Kyrgyzstan to vote on key US base." *BBC*. February 19, 2009.
- "2007년 세계 석유매장량 현황." <http://tonto.eia.doe.gov/country/index.cfm?view=reserves>. (2014년 5월 30일 검색)
- "해외주둔 미군 배치의 현황." http://en.wikipedia.org/wiki/Deployments_of_the_United_States_Military. (2014년 6월 29일 검색)
- Barbara Starr. Evan Perez & Greg Botelho (2013). "U.S. military forces strike in Libya, Somalia; capture wanted alQaeda leader. October 06, 2013." *CNN*. <http://edition.cnn.com/2013/10/05/world/africa/us-forces-africa-terrorist-raid>. (accessed on July 9, 2014)
- Jules Dufour (2013). "The Worldwide Network of US Military Bases." *The Global Deployment of US Military Personnel*. February 17, 2013. <http://www.globalresearch.ca/the-worldwide-network-of-us-military-bases/5564>. (accessed on July 7, 2014)
- Lionel Beehner (2005). "U.S. Military Bases in Central Asia."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http://www.cfr.org/kyrgyzstan/asia-us-military-bases-central-asia/p8440>. (accessed on July 8, 2014)
- "the Project of the New American Century." <http://newamericancentury.org>. (accessed on July 3, 2014)
- 미국 국무부. <http://www.state.gov/outofdate/bgn/egypt/55980.htm>.

미국 국방부. <http://www.defenselink.mil>.

미국 에너지국. <http://www.energy.gov>.

미군 해군청. http://www.navy.mil/local/story_archive.asp?id=61.

미-아프리카사령부. <http://www.africom.mil>.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http://www.iiss.org/publications/the-military-balance>.

| 논문투고일 : 2014년 08월 16일 |

| 논문심사일 : 2014년 09월 15일 |

| 게재확정일 : 2014년 09월 16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1. No. 3 (2014)

The Correlation Between Petroleum and GPR(Global Posture Review) during J. W. Bush Administration

Song-Juk Kim

(Academy of China Studies, Incheon National Univ.)

Yu-Na Choi

(Department of Politics and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of Warwick)

This article has been analyzed the correlational relation between military capability and petroleum via examining the transition of GPR(Global Posture Review) after Cold War. Over the last five decades(1941-1991), America had been declared tremendously large number of military strategies. However, there had not existed distinguishable transition on GPR. It was til 1990s that the U.S. had not shown any movement on changing GPR. Arriving at mid-1990, America expanded its military bases into oil-producing areas, such as Middle East, Central Asia, and Africa. US military expenditure has also been hugely enlarged compared to Cold War era.

This research has been clarified economic interests had driven GRP into the oil-producing areas. After the serial warfares after Cold War (1990 Gulf War, 2001 Afghanistan War, and 2003 Iraq War), US oil industry advanced into Caspian region, Libya-the former rogue, and Africa where US bases had been dispatched.

Via looking at the mentioned cases, this article draw a following

conclusion; at macro level, geoeconomic power of petroleum has driven the direction of diplomatic policy, whereas at micro level, individual profiles of the promoting group has given an impetus to the policy making process. Especially, during J.W.Bush administration, it had been plausibly apparent for the U.S. to attain its national interests utilizing GPR in order to sustain its hegemonic power. Oil has been treated as vital national interest for America who has been the first oil-importer and oil-consumer since 1980s. To obtain its goal, the U.S. has made use of hard power(economic and military power), ultimately for her to reign as a hegemonic state.

- Key words: GPR(Global Posture Review), Groupthinking, Bush administration, Oil producing country, Geoeconomics